조계종 중앙종회 6월 25일 열린다

24일 의장단 연석회의서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종회가 될 제198차 임시회가 6월25일 개원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는 4월24일 12차 회의를 열어 6월25일부터 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198차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이날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반발이 많고, 종무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6월 임시종회를 열어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관련 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차 임시회에서는 종헌종법 제재정안 처리에 집중하고 서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등은 생략하기로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사회 안전개혁은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조계종 노동위, 노동절 성명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5월1일 124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위는 성명서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대개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기업의 불합리, 부패,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계약해지가 되는 구조 속에서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도 안전과 생명에 눈 돌릴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는 비정규직 구조가 사회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노동절 행사가 열린 지 90년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며 2013년 3월 현재 208만 8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이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380만 명, 34.2%의 임금근로자가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나 사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작성,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찰 노동자들이 단순히 절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연등 훼손·연등회 폄훼… '차별금지법' 제정 절실

부처님오신날, 다시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서울 관악구 원각사에 지난해 주지로 온 연호 스님은 얼마 전 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을 친다. 도심 사찰 주지로 부임해 처음 맞는 부처님오신날이기에 신도들과 열심히 준비해 가로 연등을 걸었다. 지역주민들이 종교를 떠나 인류의 스승이 오신 날을 축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하지만 스님의 바람은 빗나갔다. 누군가가 연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훼손된 연등 위에는 성경 문구가 담긴 목판이 세워져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가로 연등 훼손과 연등회 폄훼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원각사의 사례처럼 연등을 훼손하고 성경 문구 목판까지 올려놓는 대담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중순에는 연등 훼손행위가 전주에서 발생했다. 전주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거리에 설치된 가로 연등 수 백개가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찰은 부처님오신날 4월 초 사찰 입구 간선도로 2.5km구간 양쪽에 가로 연등을 설치했지만 4월 13일 밤과 14일 새벽사이에 약 1km에 이르는 구간의 연등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모두 일률적으로 손으로 잡아당긴 듯 비닐이 심하게 찢겨 있었고 연등 내부의 철사가 모두 늘어져 있었다.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에 대한 특정종교의 폄훼와 공격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조계사에 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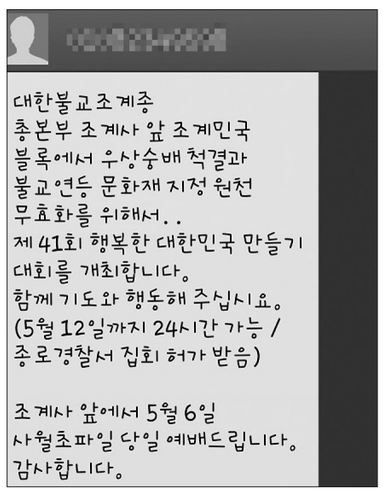
서울 관악구 원각사가 설치한
연등 훼손하고 성경 목판 세워
전주에서도 가로 연등 훼손돼
예수재단, 올해도 연등회 폄훼
"우상숭배 연등회 STOP" 주장

매년 반복되는 훼손 · 폄훼 사고
단호한 대처 · 관련 법 제정 필요

해 선교활동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던 예수재단 A목사는 최근 회원과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등회 폐지와 이를 주장하는 예배를 독려했다.

A목사는 "연등회가 문화재라는 간판을 걸고 정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방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 불교 연등의 사찰 바깥 출입은 절대 금지돼야 한다"며 "조계종 총본부 조계사 앞에서 우상숭배 적결과 연등회 문화재 지정 무효화를 위해 함께 기도와 행동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5월 6일 조계사 앞에서 예배를 열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 관악구 원각사의 훼손된 가로 연등 위에 성경글귀가 세겨진 목판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부 조계사 앞 조계민국
블록에서 우상숭배 적결과
불교연등 문화재 지정 원천
무효화를 위해서..
제41회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기도와 행동해 주십시요.
(5월 12일까지 24시간 가능 /
종로경찰서 집회 허가 받음)

조계사 앞에서 5월 6일
사월초파일 당일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재단 A목사가 배포한 문자메시지 중 일부. 이웃종교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돼 있다

매년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문제는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신고를 해도 대부분 폐쇄회로 TV(CCTV)가 없고 인적 드문 시간대에 발생한 일이라 목적자의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선 사찰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로 연등이 훼손된 전주의 사찰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꺼렸고 봉축을 앞두고 종교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원치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교계 전체의 단호한 대처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으로 '증오방지법', '차별금지법' 과 같은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증오방지법은 민족이나 인종,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증오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기독교 성서에 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가로 연등 훼손은 봉축기간에 특정종교 일부 종교인이 벌이는 연례행사가 됐다"면서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일부 종교인들의 훼불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증오방지법이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서로 '다름' 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 의문사 명예회복 도와주세요"

의문사유족協, 자승 스님 예방
관련법 개정안 국회상정 호소

"1998년에 아들이 군 복무 중 의문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냉동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조사가 이루어져 아들 장례나마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무 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회' (공동회장 김정숙) 회원중 한 명인 홍한표 이병 어머니 윤옥순씨가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지난 4월 조계종 사회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법률 통과 등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유가족협회측은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해 접견실을 찾았다.

7명의 유족은 "군 인사법 개정에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 죽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의 특성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족에게 타살 입증 책임을 전가시킨다"며 "이번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7월 국회에서는 상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의무 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회' 가 4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며 호소했다.

유가족 측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남일 같지 않은 마음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 아이들이 가면서 얼마나 부모를 찾았겠냐"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 우리 아들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자승 스님은 "국가에 자녀를 맡겼는데 사고가 생겼다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 또한 국가의 역할이다"며 "억울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지만, 법안이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유가족들을 격려했다.

군의문사 유족들을 지원해온 덕문 스님 역시 "관련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열 번이고 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원들도 자식을 둔 부모라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냐"고 위로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자승 스님, 1일 임명… '주지 인사 갈등' 봉합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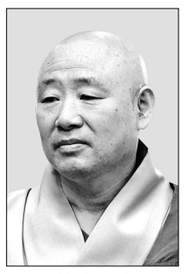
주지 인사를 놓고 갈등 중인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에 불교중앙박물관장 덕문 스님이 임명됐다. 직영사찰 조계사 주지에는 호법부장 원명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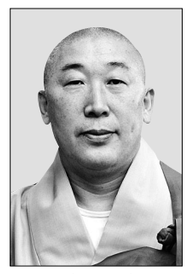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일 덕문 스님과 원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동화사는 산중 화합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만큼, 종정예하를 잘 모시는 가운데 대중들의 지혜를 모아 산중의 안정과 화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덕문 스님에게 당부했다.

이어 "조계사는 전임 주지스님들이 잘 해오신 만큼 더 혼신을 다해 전법과 가람수호에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명으로 주지 인선을 놓고 내홍중인 팔공총림 동화사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장 진제 스님은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측을 품어야 하는 의견들을 받아들여 참회제자인 덕문 스님을 주지로 임명키로 결정했다. 결정 이후 5월 1일 덕문 스님의 주지 품신 서류를 곧바로 총무원에 접수했다. 현 주지 성문 스님 측도 이 같은 임명 사실을 수용해 5월 2일 예정됐던 산중총회를 21일로 연기했다.


원명 스님


덕문 스님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후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용화사, 보문사, 선본사 주지, 13~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종무기관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으로 재임 중이다.

원명 스님은 능혜스님을 은사로 1977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용주사, 불국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현재 삼화사 주지이며 총무원 호법부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봉 축

(사) 불보종지 대한불교 영축산조계종 창종 선포문

社團法人 大韓佛教 靈鷲山 曹溪宗

창종 선포문

서천축으로부터 대성 석가세존께서 일대사십구년 교설하신 팔만사천대법문 가운데서 대승불교의 성불도생을 석가모니불 교조로 하고 육조 혜능조사를 종조로 하며 대승불교의 조계 선맥을 이어 수행과 보살학번에 의한 광구중생 구고구난의 대자대비 사상을 받들어 내세창해의 나침반으로 하여 대승보살행을 교리로 삼는다. 근세에 유감스럽게도 종단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로 끝없는 분규와 문파간의 갈등은 분종사태로 이어져 불조의 혜명을 조계맥이 특정종단의 전유물인양 주권 다툼으로 일불제자의 문중분규로 이어져 결국 불심을 멍들게하니 이러한 것을 바로잡고 佛日이 만고에 빛나게 하기 위하여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16일

발기인

원로원장 효산 대종사

총 무 원 장 향 산 봉 암 대종사　포 교 원 장 청 안
교 육 원 장 수 월　총무부원장 광 명

사회부장 지 산　문화부장 혜 월　기획실장 마 니
호국부장 도 진　감사부장 천 광　호법부장 도 산
사무국장 경 덕　홍보국장 지 운　상임감사 법 률

◇ 창종선포식 증명대덕 큰스님
육조조계종 총무원장 법 인　정토불교총무원장 법 천　대한불교前승가종총무원장 법 봉

그 외 많은 큰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

불보종지 영축산문 개산종조 향산 봉암

■ 총무원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126번지 보타사 전화 051)412-1788